

일 주 문

한국자유총연맹 총남지부 고문
예산 수덕사 선덕 웅산 스님은 2월 15일 공주 충남통일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신년교례회에서 고문으로 위촉됐다.

설맞이 쌀 서초구 전달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2월 13일 소외이웃을 위해 백미 20kg 120포를 서울 서초구에 전달했다.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법회
수원 용주사 주지 성철 스님은 2월 28일 용주사 천보루에서 3000배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개최한다. (031)234-0040

대구불교총연합회 2대 회장
대구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2월 24일 대구불교총연합회 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설맞이 양양지역 나눔 큰잔치
조계종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법 스님은 올미년 설을 맞이해 2월 16일 양양 노인복지관 어르신 1천여명을 모시고 '설맞이 나눔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회장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 2월 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정토불교대 불학기 신입생 모집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2월 28일까지 2015년 정토불교대학 불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1년과 정이다. (02)587-8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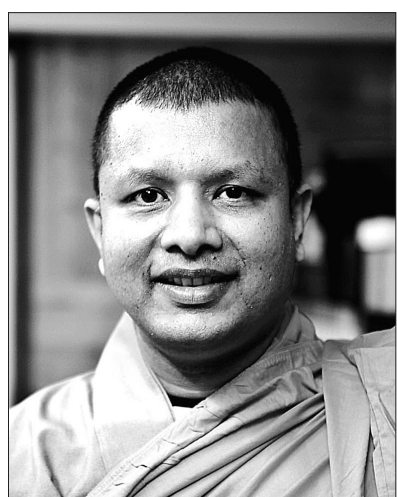
제15대 청주불교연합회장
청주 반야정사 주지 법정 스님은 2월 23일 청주시 명암타워컨벤션센터에서 청주불교연합회 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계사 신인 신도회장
김의정 前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2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7년 2월까지다.

포교사단 운영위원 연수
곽명희 조계종 포교사단은 1월 24~25일 공주 한국문화원수원에서 운영위원 연수 및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존경받는 승가, 참회서 비롯돼요”

‘팔리울장 내 참회수단’ 밝힌 스리랑카 시라 스님



위덕대 내 스리랑카 1호 박사 스리랑카 울장 내 승잔법 설명 승가 범계 참회방안으로 제시

“작은 암자 옆에 큰 사찰이 세워져 신도들이 옮겨갔습니다. 암자와 큰 사찰의 스님들이 다투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상대방을 헐뜯는 말을 하는 스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위덕대에서 스리랑카인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시라라다나 스님(이하 시라 스님)은 열은 미소와 함께 질문했다. 스님은 “팔리울장의 승잔법 내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박사학위논문 ‘팔리울장’의 십삼 승잔법에 관한 연구에서 팔리울장을 분석해 사회발달에 따라 이에 맞는 현대적 계율해석을 시도했다.

2월 9일 조계사에서 만난 스님은 먼저 논문 저술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울장에서는 중죄여도 참회를 통해 구제하는 승잔법을 전합니다. 최근 한국불교의 경우 승가 범계행위 후 이를 수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승잔법을 연구했습니다.”

스님은 “지계는 승려가 당당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자신의 죄를 밝히고, 참회를 통해 용서받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라 스님은 논문에서 음욕, 주처, 거짓말, 승가화합 파괴 등 범계행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승잔법에 의거한 처벌과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승잔법에서는 불사시 발생하는 승가 갈등의 경우 ‘백이갈마’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백이갈마’란 사찰 불사 전 대중이 함께 땅을 살피고 이치에 맞지 않

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미 대중에 거스르는 일이 벌어졌다면 당사자는 이를 참회하고, 대중들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시라 스님은 “한국불교에도 자자와 포살 범회를 비롯해 그 간간인 계율이 있지만 문제는 승잔법과 같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불교계의 범계행위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이 높아지고 있다. 승가의 진정한 참회와 이를 구제하는 계율을 현대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라 스님은 이어 “승잔법에 의거해 스리랑카의 경우 한 지역 스님들이 월 2회 같은 장소에 모여 자신이 지은 죄를 모두 털어놓고 용서를 구한다”며 “이것이 스리랑카에서 대중들에게 승가가 존경받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003년 스리랑카 국립대 졸업 후 위덕대 장학생으로 한국 땅을 밟은 스님은 2월 위덕대 졸업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전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스님은 “스리랑카에서도 교수직 제안 등이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사랑이 크다”며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이 전해지는 스리랑카 불교를 한국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게 웃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사람들 마음속 평온 발원하며 오체투지”

절하며 국토 1천일 순례나선 남해 송림사 주지 향조 스님



을 더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여기에 나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 미워하지도, 닦하지도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경남 남해 송림사 주지 향조 스님이 오체투지 순례를 하는 이유다. 벌써 1년 3개월째, 스님은 대한민국 곳곳을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온 힘을 다해 땅을 안으며 앞으로 가고 있다. 무릎은 까지고 굳은살이 박힌 지 오래다. 1천일동안 전국을 순례할 예정으로, 지난 2013년 출발해 2016년 회향한다.

특별한 계기는 없다. 사람들의 평온, 그것이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의 전부다. 불제자로서 치열하게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오체투지를 결심한 한 이유였으나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스님이 발원하는 바다.

“많은 이들이 불법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불교 역시 침체돼 있고요. 지극한 마음으로 오체투지를 하다보면 곳곳에서 만나는 불자들이 불심

스님 말대로 몇몇 불자들은 다가와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기도 하고 근처 가게로 끌고 가 몸 상한다며 이것저것 먹을 것을 안겨다준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성을 담아 보시금을 건네줄 때도 있다. 스님 손을 붙잡고 감동스러워하는 이들도 많다. 고마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종교가 다른 이들은 스님에게 폭언을 쏟아부으며 미친 사람 취급하기 일쑤다.

“정신 나갔다는 말을 듣는다고 섭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정서와는 친숙하지 않으니 그럴수도 있겠어요.”

향조 스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축원하며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며 앞으로 나갈뿐이다.

경남 남해에서 시작된 스님의 순례는 부산을 거쳐 대구까지 이어졌다. 현재 세종시에 당도한 스님은 이후 서울로 갔다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갈 생각이다.

아침 8시 반이던 시작해 오후 5시까지 고박 수행하면 하루에 4km쯤 이동할 수 있다. 봄, 가을이야 괜찮지만 겨울이나 여름은 솔직히 조금 힘이 든다. 캠프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보니 제대로 된 적도 씻은 적도 없다는 스님. 인근 사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지만 절 인심마저도 딱딱해졌는지 도움받기는 쉽지 않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한 번도 게으름 피워본 적은 없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먹고 오체투지를 했을 정도다.

“1천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수행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부족함 없이 충실히 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관두지 않을 겁니다.” (055)863-0749 배현진 기자

부산 삼광사 설맞이 자비의 쌀 전달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2월 14일 지관전에서 열린 설맞이 가족행복특별기도 회향식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부산진구장애인협회 배순자 고문과 한삼형 회장이 동참해 주지 무원 스님으로부터 자비의 쌀을 전달받았다. 자비의 쌀은 장애인 30명, 각 지역의 저소득층 25명, 독거노인 5명에게 총 600kg이 나눠졌다.

무원 스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을 통해 이 사회가 더욱 밝아지고 행복할 수 있는 공덕이 된다”며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금선사 라오스 불발탄 희생자 도와



서울 금선사(주지 법안)는 2월 13일 라오스 어린이 불발탄 예방교육 및 희생자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의 라오스 불교지역개발단체 BDP(Buddhism for Development Project)에 전달했다. BDP는 로터스월드와 함께 올해부터 공동으로 불발탄피해 예방 교육지원사업 및 도서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오스는 현재 국토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에 불발탄이 매장돼 있는 상황이다.

배현진 기자

청도 운문사 유치원 7회 졸업식



청도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원장 도진)은 2월 13일 제 7회 졸업식을 원내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보경 스님, 효림 스님을 비롯해 원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사장 진광 스님(운문사 주지)은 제7회 졸업원생 대표 안소영 어린이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개강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닦는 향기처럼...
일시: 2015년 3월 4일부터 4개월(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대상: 선 수행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장소: 동명대학교 세계 선센터 (동명관 4층)
수료료: 4개월 (10만원) * 개근상(수진스님 친필 한폭)
접수: ☎ 051)629-3582, 전수 051)629-3589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하 수진 합창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

2015년 신입생모집 [2년과정]
www.dongsanbud.net
■ 불교학과 [2월 접수중] ●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 불교다도학과 (2년) 3월 10일(화) 오후 2시
- 총차, 말차, 태교명상, 중국차문화, 한국차문화, 티-테이블세팅, 차의 미학,제다심평
■ 불교미술학과 (3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사물기법, 단청기법, 신종초, 보살초, 여래초, 영산회상도, 정토변상도, 신종도, 산신도, 수월관음도 (지도: 법인스님)
■ 선·명상학과 (2년) 3월 5일(목) 오후 7시
- 1학기: (남방) 위빠사나 수행 : 적경스님
- 2학기: (티벳) 람림 수행 : 람카스님
- 3학기: (선종) 간화선 수행 : 정도스님
- 4학기: (정토) 일심정토 열불수행 : 정목스님
■ 모집인원 (불교학과): 120명 (토요일, 목요일, 통신반 각 40명)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5년 2월 1일부터
■ 문의: (02) 732-1206~8
*상기 과정(불교학과)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